
「포용금융 간담회」

모두말씀

2020. 12. 29. 14:0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 규 상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먼저,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II. 2020년 포용금융 분야 주요성과

2020년은 금융소비자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분야에서

폭넓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우선, 숙원과제이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금융소비자의 위상과 권익 강화를 위한

중대한 전기(轉機)를 마련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취약계층에 대하여

정책서민금융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 3차추경을 통한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20년 목표 7.2조원 → 8.6조원)

→ '20년 8.8조원을 공급하여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20.10월 기준 7.2조원)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의 정상적인 상황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발생을 예방하고 과잉추심을 차단하기 위한

다층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 지원프로그램 실적('20.4~12월)

- ①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 10,720건(835억원)
- ②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 6,965건(2,673억원)
- ③ 캠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5,176건(431억원)

또한, 서민의 고금리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21.7월 시행 예정)

→ 20% 초과금리 이용자중 약 208만명(14.2조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00억원 경감 예상

한편, 최근 들어서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틈탄 고금리·불법추심 등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하여
일제단속 등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추진해 왔습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20.6.23) 및 특별근절기간 운영(6.29~12월)

- 경찰, 지자체 특사경(서울경기) 집중단속(6~10월) : 경찰 3,853명(83%↑), 지자체 19명 검거
- 불법사금융광고 25.1만건 및 전화번호 26만건 적발·차단 처리

돌이켜보면,
금융당국과 여기 참석하신 관계기관 모두가
을 한해 포용금융, 따뜻한 금융을 만들기 위해
쉽 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III. 2021년 포용금융 분야 주요과제

내년에도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소비자신용법 제정 및 시행,

금융교육 개선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과제 확정·시행,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등

포용금융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들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내년 상반기 중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세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내년 3월말 금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소비자보호 장치들이 현장에 안착되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금융회사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둘째,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어
이자부담경감 등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제도권 금융이용 위축 등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회사가
상환능력 있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를 전면 정비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자금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서민금융상품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 등 금융환경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서민금융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안과제 외에도
대학생과 미취업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신속한 복귀 지원,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복지·고용서비스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성실상환과 자활 지원 등

포용금융이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금융 패러다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IV. 마무리말씀

오늘 간담회는
포용금융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포용금융의 토대를 넓혀 나가기 위한
통찰과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입니다.

어떠한 의견도 소홀히 듣지 않고
다각도로 고민하고 검토하면서
앞으로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는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포용금융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